

구제역 석달

327만마리 살처분 재산피해 1조5천억

전국 146건 발생... 공무원 9명 순직

매몰지 침출수 유출 환경재앙 우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석 달 동안 전국 각지로 확산하면서 가축 수백만마리가 살처분되고 조 단위의 재산피해를 낳는 등 전례 없는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동시 와룡면 모 양돈단지 내 돼지 농가 2곳에서 사육하던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된 이번 구제역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면서 이미 전국을 초토화했다.

태었다는 게 검역당국의 잠정 결론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 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2400여곳을 설치해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과 함께 우체부(소, 돼지 등 발굽 두 개인 동물) 가축 살처분에 힘썼으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

예방백신 접종을 지난해 12월 2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에서 1188만마리(소 355만, 돼지 833만)의 가축이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았고 현재 현재 형성률을 높이기 위한 2차 접종이 실시돼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숨을 잃었고 각 시·도별로 수십명씩 병상에 누워있다.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농민이나 수의사가 가축에게 밟히거나 차이고 주사바늘에 찔리는 등 민간인 부상도 30여명에 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구제역 사태 대안 모색을 위한 광주시민 모임'은 15일 오후 광주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 홀에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밀집사육이 구제역 초래... 유기축산으로 가야” 가축질병 대안 시민토론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밀집축산이 아닌 동물복지형 고품질 축산물 사육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 밀집사육 시스템에서 질병이 적게 발생하는 동물복지형 고품질 축산물 사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동물복지와 농장 동물 복지동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집약적 생산시스템"으로 축산사육 형태가 변화하면서 가축분뇨와 악취의 발생, 항생제 남용 등에 따른 축산물 안전성 논란 등으로 동물복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유농업계가 합의기구를 구성해 질병이 적게 발생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복지형 고품질 축산물 사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식 전국농민회총연맹 공동대표도 '한국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동물복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서라도 유기농 신도전이 축산, 생애순환 축산에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은상이다"라며, 유기농법(유기 축산)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조 대표 표는 이날 '구제역을 통해 본 식생활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의 '공장식 축산' 형태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겪었던 가축질병들이 기후변화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해 더 잦은 발생률과 확산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인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구제역사태 대안모색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토론회 후 '채식파티'를 가졌으며, 향후 식량위기 사태와 축산, 기후변화, 구제역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구제역 매몰지 24시간 감시

'토양 오염 자동 경보시스템' 도입

향후 2년 예방 백신 접종 불가피

구제역 가축 매몰지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매몰지 주변을 첨단 IT장비로 24시간 감시해 침출수 유출 등에 즉각 대응하는 '토양 오염 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2년 정도는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 계획이다. 환경부의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과 국토해양부의 국가 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하수 관리 데이터베이스(DB)에 매몰지 정보를 연결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매몰지 인근의 상수도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공사의비 70%를 국비로 지원해 가축이 집중적으로 묻힌 지역부터 상수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매몰지 주변 관측정에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경보기를 부착해 침출수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때 자동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인 매몰 대신 소각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가축 살처분 수단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문단 위촉식 및 1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구제역 백신접종과 관련 "올해 3차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가을 이후 상황을 주시해 내년 상황까지 살펴본 뒤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2년 정도의 예방접종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 잠정적인 분석"이라고 밝혔다.

“3월부터 구제역 소강... 종식”

정운천 최고위원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별위원회 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15일 "3월부터는 구제역이 완전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종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다행히 정부의 백신 접종이 성과를 있었고, 2월 말이면 2차 접종이 끝나고 항체가 완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 매를 처리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다"며 "자재 공급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 매를 처리하는데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 것만큼은 분명 우리가 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침출수에 치명적인 병원균이 섞일 수 있다는 지적에 "땅의 자연정화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겨울에도 땅속 3~4m로 내려가면 에너지가 똑같은 만큼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본교캠퍼스 전경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르심!
Th.M.(신학석사)과정 개설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작성해서 12개월에 학위 완성함.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Table with columns: NO, 교수명, 과목, 경력 및 현직. Lists faculty members and their subjects.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 1. 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최의 교육환경
2. 호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3. 최 단기 학위과정 완성
4. 대 교단 총회인신학교
5. Venture Spirit
6.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7.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8. 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9. 해외 대학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매년 심포지엄, 선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10. 복수 학위제 실시

개강과목: 대체의학(수지침, 뜸)
개강일시: 3월3일(목)
기간: 8주 과정 (매주 목요일)
수강료: 월 5만원
강사: 문형식 (교려수치침학회)
(* 담임교역자는 수강료 50% 할인)

뜨거운 영성과 날카로운 지성의 조화
광주바이블칼리지
Gwangju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http://www.gjbc.kr
TEL. 061) 381-1365/0000
FAX. 061) 381-1367